

이지웰페어 (090850)

기업 탐방노트 | Mid-Small Cap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9,760 원
시가총액	1,064 억원
KOSDAQ (4/25)	750.43 pt

탐방 Update

Analyst 김한경 _ 02 3779 8848 _ hk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5.48 억원
외국인 지분율	15.7%
절대수익률 (YTD)	27.4%
상대수익률 (YTD)	16.3%
배당수익률 (19E)	0.6%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40.9	52.3	58.4	73.1
영업이익	4.6	0.6	4.3	7.0
순이익	3.1	-0.3	2.2	1.7
ROE (%)	0.0	-1.4	9.3	6.4
PER (x)	38.3	-209.5	24.0	38.9
PBR (x)	4.5	2.9	2.0	2.6

자료: 이지웰페어,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국내 1위 위탁 복지 전문 회사

이지웰페어는 기업 및 공공기관 복지 예산에 기반한 선택적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의 위탁 복지 예산 규모는 2018년 기준 1.2조원으로 국내 점유율 1위(45%) 사업자다. 주요 수익 모델은 온라인 복지물 거래대금을 기반으로한 수수료 수취이며 자회사를 통해 근로자정신건강프로그램(EAP), 여행 포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실적은 매출액 731억원(+25.2% yoy) 영업이익 70억원(+61.7% yoy, OPM 9.6%)를 기록했다.

온라인 물 이용 비중 상승이 핵심

지난 해 동사 위탁 예산은 1.2조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정부 주도의 고용 대책 영향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및 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기업들이 임직원에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주요 수익원은 복지물 이용 거래대금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 총 위탁 예산 중 온라인 이용 비중이 실적의 주요 변수다. 2018년 온라인 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2%p 증가한 30%로 추정되며 올해에도 복지를 상품 경쟁력 강화,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포인트 외 개인결제 증가 영향으로 2~3%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회사 이지웰니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수혜 기대

자회사 이지웰니스는 근로자정신건강프로그램(EAP)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직원 심리상담에 대한 의무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개정되며 사업주들은 피해직원에게 대한 치료 및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사의 수주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지웰니스 2018년 실적은 매출액 45억원(+30.7% yoy),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했으며 올해 매출은 관련법 수혜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지웰페어

목표주가 추이

(원)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7/04

17/10

18/04

18/10

19/04

— 주가

— 목표주가

투자 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라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라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19.4.26	변경	김한경									
2019.4.26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한경)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2% 6.8%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18. 4. 1 ~ 2019.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